

# 고립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정책에의 함의

The Social Cost of Social Isol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김성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한 데 주목하여, 사회문제로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심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고립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였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지지체계가 없는 국내 고립 인구의 비율은 2019년 기준 21.7%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갤럽 월드 폴 원자료를 이용해 고립의 심리적 비용을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이 곤란한 일을 경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지지체계가 없는 상태로 고립된다면 행복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의 4.79배가 필요하다. 학령기를 마친 한 사람이 청년기인 만 25세에 은둔을 시작하여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개시하지 않고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공공부조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은둔의 경제적 비용은 1인당 약 15억 원에 이른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지금,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한 사회적 고립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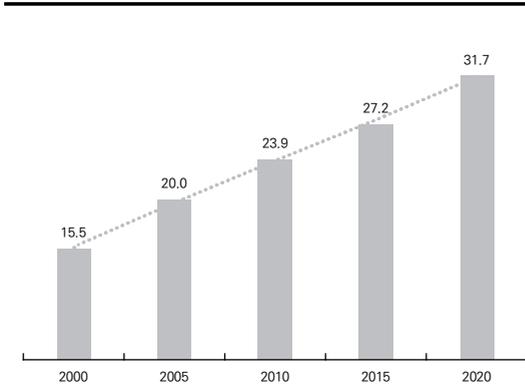
## 1. 들어가며: 사회적 고립의 등장

2000년대 이후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해 2020년 기준 1인 가구는 10가구 중 3가구에 이른다(그림 1).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타인과의 물리적 거리를 무색하게 만들었지만, 전원을 끈 실제 세계에서 혼자 있게 하였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인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립된 인구의 비율도 늘어난다. 그 결과 중장년과 노인의 고독사 문제도 늘고 있다(그림 2). 청년의 고립 문제가 덜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나 결혼 및 출산 선택에서 스스로 자신을 배제해 사실상 저출산 문제가 심화할 개연성을 높인다. 합계출산율은 2013년에 1.187로 감소한 이후 2015년에 1.239까지

그림 1. 1인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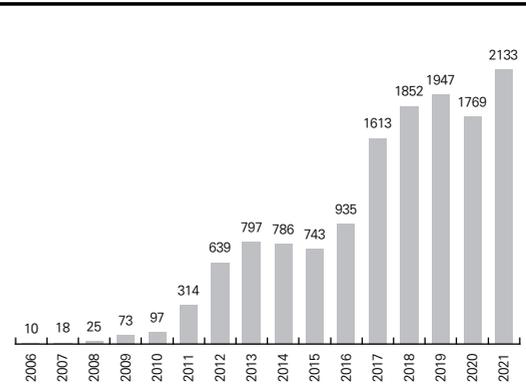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1인가구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6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61&conn_path=I2)에서 2022. 1. 28. 인출.

그림 2. '고독사' 언론 기사량 추이

(단위: 건)



주: 빅카인즈에서 2005~2020년 언론 기사 가운데 '고독사'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임.

자료: 고독사,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에서 2022. 2. 24. 인출.

다소 개선되었으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기준 가임 여성 1인당 0.840에 이르렀다<sup>1)</sup>.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거리 두기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가 멈추고 있다.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지지체계도 없는 국내 사회적 고립 인구는 2019년 기준 13세 이상 인구의 4.7%(약 220만 명)로 추계되었으나,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된 2021년에는 그 비율이 6.0%(약 280만 명)로 증가하였다(그림 3).<sup>2)</sup> 사회적 고립의 개념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여기에서는 ① 동거하는 가족이나 업무상 접촉 이외

에 가족, 친지, 타인과 유의미한 사적 교류가 없고(A. 사회적 관계 없음), ② 생활에서나 경제적·심리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적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B. 사회적 지지체계 없음)로 정의하였다. [그림 3]을 보면, 동거하는 가족이나 업무상 접촉 이외의 사회적 관계가 없는 경우는 2019년 15.6%에서 2021년 13.7%로 다소 줄었으나,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가 같은 기간 8.9%에서 12.5%로 증가하였다.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는 사적 영역에 잔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적 지지체계 없이 고립된 상황

1)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2) 통계청. (2019). 2021년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

그림 3. 코로나19 확산 전후 사회적 고립 인구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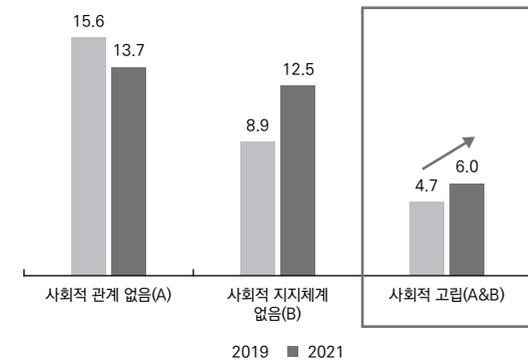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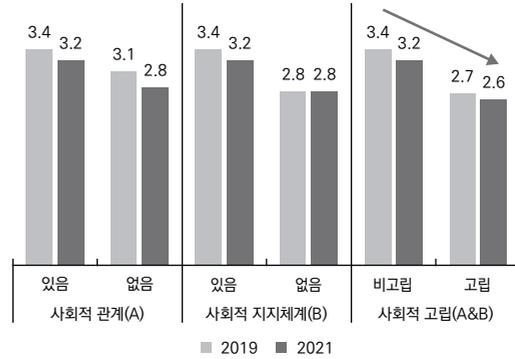


그림 4. 코로나19 확산 전후 고립 인구의 삶의 만족

(단위: 점)



주: 13세 이상 인구임.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9). 2021년 사회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은 공적 지지체계가 작동해야 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더 이상 개인 단위의 사적 문제라기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전반적인 사회적 활력을 저하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삶에 대한 만족은 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생(生)의 활력을 반영하는바,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은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삶의 만족 수준을 낮추었는데, 특히 고립된 인구의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은 전체 인구의 삶의 만족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고립의 극단적 형태로서 일본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히키코모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국

내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른다. 은둔형 외톨이는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 실패 경험을 누적하고 지지체계에 의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방과 같은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 자신을 가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혜원 외, 2021, pp. 23-35). 은둔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 ‘보통 사람들처럼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소수의 은둔자들이나 가족들이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sup>3)</sup>. 2019년에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주

3) 김초롱, 차영현. (2021); 은둔형 외톨이 가족모임, 2021; 파이낸셜뉴스. (2021~2022). 히키코모리 특집기사 시리즈; 단비뉴스. (2021~2022) 은둔 청년 보고서 시리즈 등

광역시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광주광역시청, 2022). 하지만 사회적 고립이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부족하다.

유럽연합에서는 팬데믹 시대의 외로움(loneliness)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약 12%의 유럽인이 외로운 감정을 보고했지만, 팬데믹 동안에 외로움을 호소한 유럽인은 25%로 이전의 2배 정도로 늘어난 데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다 (European Commission, 2021, pp. 16-34). 팬데믹의 상흔을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지금, 고립은 사적 문제라기보다 공적 논의와 지원이 필요한 사회문제이자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국제 비교 관점에서 사회적 고립의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회문제로서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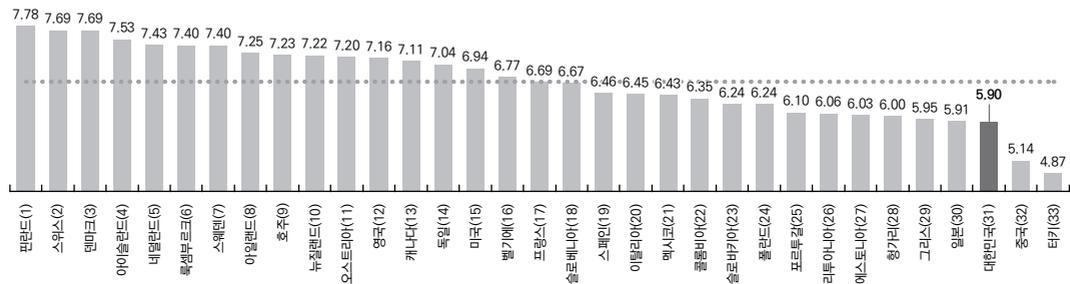
을 확인하고, 고립의 심리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추계하여 사회정책에의 함의를 도출한다.

## 2. 주요 국가의 사회적 고립 현황과 추세

사회적 고립이라는 문제는 행복 연구에서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누리는 행복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와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서유럽 국가는 행복 수준이 2019년 기준 7점대로 높은 순위를 보인다. 대륙 유럽 국가들과 영미권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뒤를 잇고 있다.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복 점수가 낮은 국가군에는 남유럽 국가와 체제전환국, 동아시아 국가가 다수 자리

그림 5. 2019년 주요 국가 국민의 행복: 삶의 평가

(단위: 점)



주: 캔트릴 사다리 척도(최소 0점부터 최대 10점에 의한 평균값임.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국가명 뒤 괄호 안 수치는 순위임. 점선은 평균(6.7점)임. 자료: 갤럽. (Gallup), 갤럽 월드 폴(Gallup World Poll) 원자료 저자 분석.

하고 있다. 한국의 행복 점수는 6점에 미치지 못하는 5.9점에 머무르고 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행복의 기저에 있는 요인으로 소득, 건강 문제, 사회적 지지체계, 선택의 자유, 기부 등이 타적 사회참여, 부패 인식의 여섯 가지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Helliwell, Layard, & Sachs, 2021). 우리나라는 소득과 건강 문제 등의 물질적 진보 수준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진보 수준이 주요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이태진, 김성아 외,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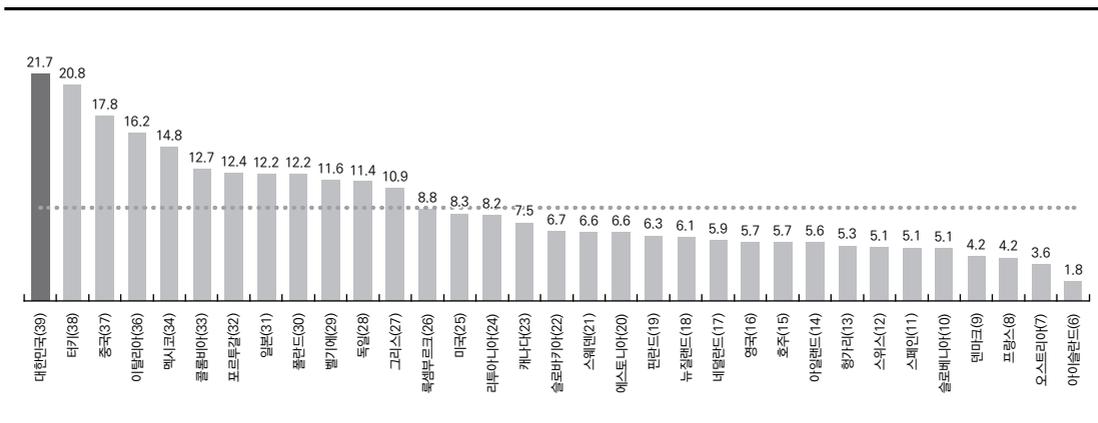
특히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고립된 인구의 비율(2019년 기준)이 21.7%로 가장 높다(그림 6). 아이슬

란드에서 사회적 지지체계 없이 고립된 인구 비율이 1.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고립 인구 비율은 10배를 넘는 수준이다. 유럽과 영미권의 다수 국가에서는 고립된 인구의 비율이 전체의 10%가 안 되는데, 2019년 북동시리아 침공 이후 현재까지 경제난을 겪고 있는 터키의 고립 인구 비율인 20.8%와 한국의 고립 인구 비율이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6]은 2010년 대비 2019년 주요 국가 국민의 행복 수준과 고립의 변화량을 보여 준다. 이탈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삶의 평가로 측정하는 행복 수준이 증가하였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고립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한국은 삶의 평가 점수가 지난 10년 동안 0.21점 정도 감소하였고, 고립 인구 비율은 3.24%포인트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나타나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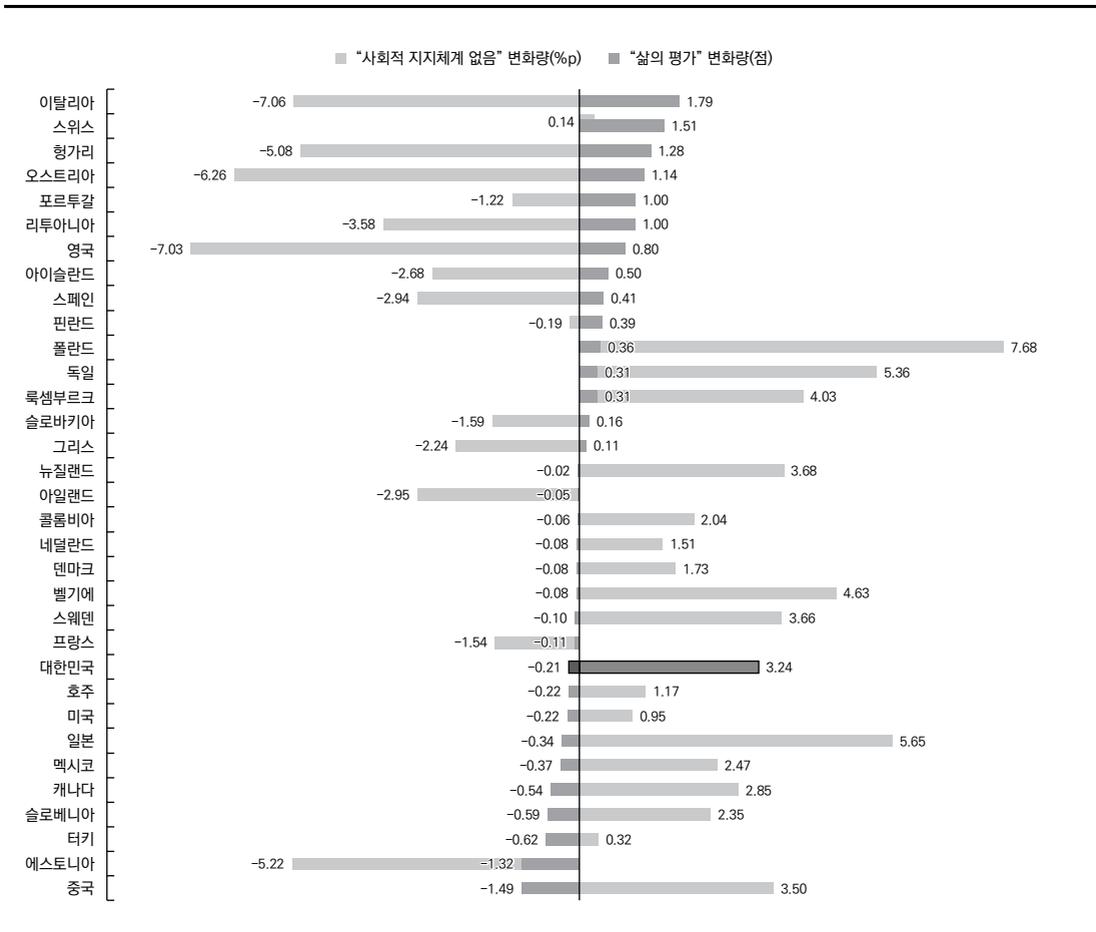
그림 6. 2019년 주요 국가 국민의 고립: 사회적 지지체계 없음

(단위: %)



주: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가 없다고 응답한 사례의 비율임.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국가명 뒤 괄호 안 수치는 순위임. 점선은 평균(9.0%)임. 자료: 갤럽,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7. 주요 국가 국민의 행복 수준과 고립 변화(2010년 대 2019년)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국가별 2019년 삶의 평가(칸트릴 사다리) 점수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다는 응답률에서 2010년 값을 감함. 칸트릴 사다리(삶의 평가)로 측정하는 행복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정렬함.  
 자료: 갤럽,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저자 분석.

회적 고립은 일시적인 상황이라기보다 심화하고 있는 사회문제일 수 있다.

### 3. 고립의 심리적 비용 추계

우리 사회에서 지拂하는 고립의 총비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심리적 비용

이고, 다른 한 가지는 경제적 비용이다. Winkelmann & Winkelmann(1995, 1998)과 Knabe & Rätzl (2011)은 다음의 수식에서 삶의 만족으로 측정하는 행복 수준을 결과변수( $Y_{ijt}$ )로 두고 로그 가구소득( $\ln HHINC_{ijt}$ )의 영향과 비교하여 실업의 심리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여기에서는 실업을 사회적 고립( $SI_{ijt}$ )으로 대체하여,  $t$  연도에 국가

$j$ 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i$ 를 기준으로 고립의 심리적 비용을 추계한다.  $X_{ijt}$ 는 개인  $i$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의 벡터이다.<sup>4)</sup>

$$(1) Y_{ijt} = \beta_0 + \beta_1 \ln HHINC_{ijt} + \beta_2 SI_{ijt} +$$

$$\beta_3 X_{ijt} + \nu_j + v_t + \tau_{jt} + \epsilon_{ijt}$$

개인 단위에서 사회적 고립이 유발하는 심리적 비용을 구하기 위해 (1)번 수식을 통해 확보한 가구소득의 영향( $\beta_1$ )과 사회적 고립의 영향( $\beta_2$ )을 활용하는 (2)번 수식에 의한  $x$ 를 사용한다. 이로써 최종적인 고립의 심리적 비용은 가구소득 1단위 영향의  $x \times 100\%$  혹은  $x$ 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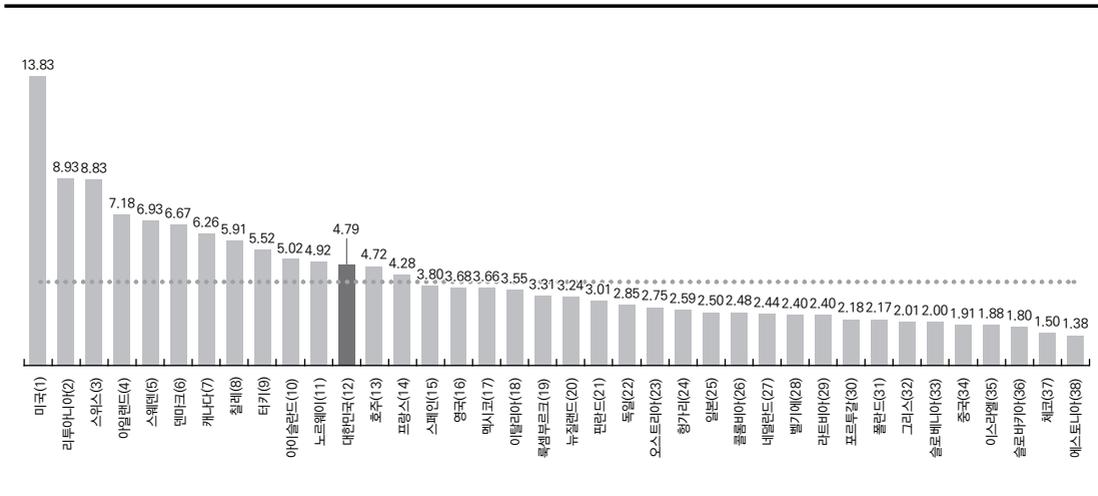
(Winkelmann & Winkelmann, 1995, 1998; Knabe & Rätzel, 2011).  $x$ 의 숫자가 클수록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대한 심리적 충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 x = - \frac{\beta_2}{\beta_1}$$

[그림 8]은 갭럽 월드 폴 원자료를 분석하여 주요 국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고립의 심리적 비용, 즉  $x$ 를 보여 준다. 사회적 고립 경험으로 인한 개인 단위의 심리적 비용은 가구소득 1단위 대비 최고 약 13.8배(미국)에서 약 1.4배(에스토니아)에 이른다. Knabe & Rätzel(2011, p. 2759)

그림 8. 주요 국가에서 보이는 고립의 심리적 비용( $x$ ): 소득과의 비교

(단위: 배)



주: 2009~2020년 자료임.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 결과를 활용한 성별, 만 나이, 만 나이 제곱, 건강 문제, 결혼 상태, 가구원 수, 가구 내 아동 수,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기부 및 자원봉사 경험, 도난 경험, 재계 및 정계 부패 인식, 선택의 자유, 미래 전망, 국가 고정 효과, 연도 고정효과, 국가별 연도 추세를 통제 후 로그 가구 월 소득과 사회적 지지체계 데미의 계수를 이용해 산출함. 점선은 평균(3.99배)임.

자료: 갭럽, 갭럽 월드 폴 원자료 저자 분석.

4) 분석 모형 (1) 및 변수군의 상세한 내용은 [그림 8]의 주와 이태진, 김성아 외(2021)의 부록 참조.

이 독일의 패널(GSOEP) 자료를 활용해 확인한 실업의 심리적 비용이 가구소득 1단위 대비 1.49배(149.2%)인 데 비해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일에서 사회적 고립이 유발하는 심리적 비용이 2.85배라는 점을 비교하면, 실업보다 사회적 고립의 충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 경험이 유발하는 심리적 비용은 가구소득 1단위의 4.79배로, 미국, 리투아니아, 스위스 등에 이어 비교 대상 38개국 중 12번째로 크다. 38개 국가의 평균  $x$  값인 3.99배에 비해서도 높는데, 노르웨이(4.92배)에 비해서는 다소 낮고 호주(4.72배)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곤란한 일을 경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지지체계가 없는 상태로 고립된다면 그가 10만 원어치의 행복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79배, 즉 약 48만 원의 소득이 더 필요하다.

#### 4. 은둔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이 글에서는 은둔을 고립의 극단적인 형태로 간주하며, 방과 같은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 머무르며 일정 기간 이상 경제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상태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은둔으로 인해 유발되는 잠재적인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 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다(Coase, 1960).

일본에서 등장한 현상으로 후생노동성에서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가 취업한 상황을 가정하여 이때 발생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조세 기여와 의료 등 사회보장 지원 및 생계급여 비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바 있다.<sup>5)</sup> 그 결과, 히키코모리 1명이 25세에 은둔을 시작한 경우 경제적 비용을 약 1억 5,294만 엔으로 추산하였다. 이는 한화로 약 16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본의 사례를 고려하여 학령기를 마친 한 사람이 청년기에 은둔을 시작해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개시하지 않고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공공부조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은둔하는 개인의 조세 기여가 잠재적인 편익이 되고 여기에 공공부조에 의한 지출을 비용으로 감한 최종 비용이 개인 단위 은둔의 경제적 비용이 된다. 여기에서 은둔하는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이들의 조세 기여는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음(-)의 편익이 되고, 결과적으로 은둔의 경제적 비용은 음(-)의 값이 된다.

비용과 편익의 현재 가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물가상승률에 의해 상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최초 은둔 이후 탈은둔과 사회활동 재개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단, 공공부조에서 자산 및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 최대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과대 추

5)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참조.

표 1. 은둔 시작 연령 시나리오별 은둔의 경제적 비용

만 나이 (세)	기대여명 (연)	기대여명 (월)	1인 가구 생계급여 (원/월)	기대여명 (월) × 생계급여 (백만 원)	1인당 의료급여 (천 원/ 연)	기대여명 (연) × 의료급여 (백만 원)	1인 가구 주거급여 (원/월)	기대여명 (월) × 주거급여 (백만 원)	1인당 국민 부담액 (천 원)	기대여명 (연) × 국민 부담액 (백만 원)	총비용 (백만 원/ 인)
19	64.8	777.6		454		375		156		660	1,645
<b>25</b>	<b>59.0</b>	<b>708.0</b>		<b>413</b>		<b>341</b>		<b>142</b>		<b>601</b>	<b>1,498</b>
30	54.1	649.2		379		313		130		551	1,374
35	49.2	590.4	583,444	344	5,785	285	201,000	119	10,191	501	1,249
40	44.4	532.8		311		257		107		452	1,127
45	39.6	475.2		277		229		96		404	1,005
50	34.9	418.8		244		202		84		356	886

주: 월 단위 기대여명은 연 단위 기대여명에 12개월을 곱한 값임. 의료급여액은 「2020 의료급여통계연보」에 의한 의료급여 급여비 실적(p.LXVI)을 총수급권자 수 (p.LVII)로 나눈 값임. 주거급여는 2022년 1인 가구 3급지 기준 임차급여임.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20년 총국민부담액(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총액)을 같은 시점 총인구수로 나눈 값임.

자료: 1) 기대여명 - 통계청, 2020년 완전생명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3)에서 2022. 1. 18. 인출.

2) 생계급여액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202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3) 의료급여액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2020 의료급여통계연보.

4) 주거급여액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48호 (2022).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5) 1인당 국민부담액 - 김남준. (2021. 6. 8.). 작년 1인당 국민부담액 1019만원, 부담 증가 속도 OECD 1위. 중앙일보.

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계재나 사회적 가치 미창출, 저출산, 고독사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외부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과소 추정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표 1〉은 은둔을 시작하는 나이를 성년에 이른 만 19세부터 가정하고, 완전생명표에 의한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사망 시점까지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부조에 의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지원액과 경제활동으로 인한 조세 기여분을 합산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만 25세에 은둔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은둔의 경제적 비용은 은둔 인구 1인당 약 15억 원에 이른다. 다만, 은둔에 의한 사회 단위의 총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은둔 인구의 규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 5. 나가며: 고립을 벗어나 연결된 사회를 위한 함의

이 글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사회적 고립이 등장한 데 주목하였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과 중장년, 최근에는 청년의 고독사를 직면하고 있다. 거기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물리적 거리 두기는 일상이 되었다. 고립이 더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심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고립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였다.

첫째, 국내 사회적 고립의 심리적 비용은 가구 소득 1단위 대비 4.79배이다. 한 사람이 곤란한

일을 경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지지체계가 없는 상태로 고립된다면 그가 10만 원어치의 행복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79배, 즉 약 48만 원의 소득이 더 필요하다(그림 8). 둘째, 방과 같은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 머무르며 일정 기간 이상 경제활동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은둔의 경제적 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은둔자의 조세 기여를 잠재적인 편익으로 하고 공공부조에 의한 지출을 비용으로 감하여 은둔을 시작한 연령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구했다(표 1). 예를 들어, 학령기를 마친 한 사람이 만 25세에 은둔을 시작하여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개시하지 않고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공공부조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은둔의 경제적 비용은 1인당 15억 원 정도이다.

개인 단위의 심리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사회 단위의 총비용으로 추산하기 위해서는 고립된 인구의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뿐 아니라 실태조사조차 부재하다. 새로운 위협에 노출되어 고립된 인구의 규모와 고립된 삶의 실태, 정책 수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따라서 종합적인 정책 대응 전략이 없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헌법」 제3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점을 고려해 고립의 경제적 비용을 추산한 바 있으나, 사회정책의 역할은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우선하여 전통적인

방식의 경제활동과 납세의 의무를 무조건 강제하기보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2019년 자료를 주로 활용했으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사회적 고립에 주목하고 연결된 사회를 지향할 때다. ■

##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 (2022. 1. 6.).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중장기계획 마련. 보도자료. 광주광역시청.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2020 의료급여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김남준. (2021. 6. 8.). 작년 1인당 국민부담액 1019만 원, 부담 증가 속도 OECD 1위. 중앙일보.
- 김초롱, 차영현. (2021). 은둔도 스펙이다. 서울: K2인터내셔널코리아.
- 김혜원, 조현주, 김연옥, 김진희, 윤진희, 차예린, 한원건. (2021). 가족, 사회, 자신을 위한 희망안내서: 은둔형 외톨이. 서울: 학지사.
- 단비뉴스. 은둔 청년 보고서 시리즈.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List.html>에서 2020. 2. 4. 인출.
- 은둔형 외톨이 가족모임. (2021).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가이드북: 은둔형 외톨이의 방구석 표류일기. 서울: 행복한책읽기.
- 이태진, 김성아, 이병재, 엄다원, 정해식, Shun Wang, 전영섭 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 학 행복연구팀. (202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파이낸셜뉴스. 히키코모리 특집기사 시리즈. <https://www.fnnews.com/hikikomori>에서 2022. 2. 4. 인출.
- 후생노동성. 貧困·格差の実態を総合的·継続的に把握するための指標の開発に関する経費. <https://www.mhlw.go.jp/topics/2012/01/dl/tp0118-1-10.pdf>에서 2022. 2. 4. 인출.
- Baarck, J., Balahur-Dobrescu, A., Cassio, L. G., D'hombres, B., Pasztor, Z., & Tintori, G. (2021). Loneliness in the EU. Insights from surveys and online media data, EUR 30765 EN.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2021. ISBN 978-92-76-40246-6, doi:10.2760/28343, JRC125873.
- Coase, R. H.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The Journal of Law & Economics*, 3, 1-44.
- European Commission. (2021). Loneliness in the EU: Insights from surveys and online media data. European Union.
- Knabe, A., & Rätzl, S. (2011). Quantifying the psychological costs of unemployment: the role of permanent income. *Applied Economics*, 43(21), 2751-2763. doi:10.1080/00036840903373295
- Helliwell, J. F., Layard, R., & Sachs, J. (2021). World Happiness Report 2021.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Winkelmann, L., & Winkelmann, R. (1995). Happiness and unemployment: a panel data analysis for Germany. *Applied Economics Quarterly*, 41(4), 293-307.
- Winkelmann, L., & Winkelmann, R. (1998). Why are the Unemployed So Unhappy?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a*, 65(257), 1-15.
- 갤럽(Gallup). 갤럽 월드 폴(Gallup World Poll) 원자료에서 2021. 6. 1. 인출.
- 고독사.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에서 2022. 2. 24. 인출.
- 통계청. (2019). 2021년 사회조사 원자료.
- 통계청. (2019). 2021년 장애인구추계(중위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에서 2022. 1. 20. 인출.
- 통계청. 2020년 완전생명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3)에서 2022. 1. 18. 인출.
- 통계청. 1인가구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6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61&conn_path=I2)에서 2022. 1. 28. 인출.
- 통계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3)에서 2022. 1. 20. 인출.
-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에서 2022. 1. 28. 인출.

헌법.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198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202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  
준과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48호 (2022).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 The Social Cost of Social Isol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Kim, Seong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study estimates the social cost of isolation from the psychological and economic aspects. As of 2019, the proportion of the isolated population in Korea who reported having no one to turn to in times of trouble was 21.7%, the highest among OECD member countries. Results from the analysis using the Gallup World Poll data suggest that someone who has been isolated without anyone to turn to help needs 4.79 times as much as his or her household income to restore his or her previous life satisfaction level. It is estimated to cost as much as 1.5 billion Korean won to support someone who begins living a socially-isolated life at the age of 25 and remains isolated without taking part in the labor market. As we preparing for the post-COVID-19, social isolation becomes a new social risk, and it is time for our society to actively pay attention.